

“혈세납비·역사무시·교통대란”

광화문 확장에 여론 ‘싸늘’

‘정치 공세’ 감안해도 긍정적 여론 잘 안 보여



박원순 서울시장의 오는 2021년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광화문 확장에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단 현재까지 여론은 박 시장의 ‘도시 공사에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네티즌의 악플을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인 반응 자체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 “경제도 어려운데, 혈세 납비...”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를 광장으로 편입해 면적을 약 4배 늘리고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지하로 연결해 지하철 다섯 개 노선이 통과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쏟아진 언론 보도엔 그러나 부정적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표현은 혈세 납비다. 이번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는 완공 목표인 2021년 5월까지 서울시 예산 689억원, 문화재청 예산 371억원 등 총 10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의도를 알 수 없는 광장 확장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민이 바랐던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에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것이다.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도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 벌어질 교통 체증과 각종 불편 공사 이후 차선이 사라짐에 따라 발생할 교통 대란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광장 넓힐 생각하지 말고 미세먼지 대책이나 세우라”고 꼬집었다.

◇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 상 옮기면서까지...”

또 다른 불만은 광화문의 상징적 조형물인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상의 이동이다. 다수 네티즌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추앙받는 두 영웅이 ‘중앙에서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 시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우리 역사를 무

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식으로 비판한 네티즌도 있었다. “광장을 위해 우리 역사를 지우려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하다”는 언급도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세종대왕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이순신 장군상은 정부종합청사 옆으로 옮겨지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 반발을 우려해 “연말까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 “안 그래도 시위 많은데...”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목표 중 하나는 3·1운동에서 각종 민주화 항쟁 국경농단 촛불시위까지 이어진 이른바 ‘시민성’을 더 철저히 담아내는 것이다. 이번 사업 국제설계진 공모에 당선된 ‘CA조경기술사무소’ 진양교 대표가 “광장 자체로 시민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의미가 있다고 말한 건 이 같은 의도로 읽힌다.

다만 일부 네티즌은 국경농단 사태 이후 진보 세력이 집권하자 각종 집회·시위가 증가, 광화문 일대에서 주말을 즐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 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집회·시위건수는 총 6만831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일 18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며, 2017년(4만 3161건) 대비 58%(2만5154건) 가량 증가한 규모다.

한 네티즌은 “광화문은 이제 시위꾼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각종 시위를 위한 공간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며 “광화문 광장이 시위하는 사람들의 공간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뉴스스

지역광판·미세장조·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서울시 공원 풍경 기록하는 ‘공원사진사’ 모집

월 1회 이상 출사 가능·카메라 보유 시민 대상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의 변화 모습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재능 나눔 활동가인 ‘공원사진사’를 모집·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다. 공원에서 월 1회 이상 촬영 활동과 정기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시에는 60여명의 공원사진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원사진사는 동부공원녹지사업

소에서 13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20명이다.

보라매공원, 서울숲, 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천호공원, 율연공원, 응봉공원 등에서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등에서 활동을 원하면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지원하면 된다.

지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서류심사 후 2월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원사진사가 촬영하는 사진은 공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시민들이 공원의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공원 홍보 자료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공원사진사로 선정되면 매월 전문가의 사진 강좌를 통해 사진에 대한 이론을 배운다.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사진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1월 개최 예정인 ‘서울의 공원사진사 사진전’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공원사진사’를 검색하거나 해당 공원녹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인생 역전 꿈꾸는사람들로 북적이는 북관방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작년 1년(1월 1일~12월 31일) 로또복권 판매액이 3조 9658억원(잠정치)으로 집계돼 15년 만에 신기록을 썼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관방의 모습.

서울시, 10억 투자해 통학로에 녹지조성

2021년까지 약 10억 원 규모·미세먼지 보호 효과 기대

서울시가 학교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 추진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한국사회복지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에서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중 사업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매년 1개소 선정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를 조성하고 녹색 문화 확산 등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3년 간 총 사업비 약 10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사업의 기획, 실행 및 유지관리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평가 분석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사회복지와 함께 사업효과가 높고 녹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을 검토해 추진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가로수 및 띠녹

지 조성이 가능한 곳 ▲담장·옹벽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곳 ▲도로의 차선 수 혹은 차선 폭 축소로 보행 및 녹화 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검토된다.

아울러 시는 선정된 학교와 나무 돌보미 협약을 체결해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가꾸는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마치 김길과 같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는 효과 뿐 아니라 풍부한 녹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서울을 만들고 시민들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